

상생형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과 창업가 역량 향상에 관한 연구: 새가계운동 사례*

이윤택(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대성(부경대학교 경영대학 시간강사)***

오윤석(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상생형 현장체험 창업교육의 일환인 새가계운동이 대학생 창업의도와 현장체험 대상기업인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가계운동 체험이 기업가정신, 창업태도, 창업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창업태도에, 창업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상공인들의 창업가 역량(경영역량)과 기업가정신이 향상되고 이들의 향상은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새가계운동과 같은 새로운 상생형 체험 프로그램이 참여한 대학생과 업주에게 양방향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교육에 있어서 세대별로 단절되는 것보다는 새가계운동과 같이 청장년이 같이 노력해서 그 결과가 상생적인 양방향 현장체험학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현장체험, 소상공인, 창업의도, 기업가정신, 창업스킬

1. 서론

창업(Start-Up)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난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각국의 정부는 저성장에 따른 실업 해소 문제와 고용창출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에 주력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도래에 따라 대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창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980년대 유럽 국가들은 저성장에 따른 실업 해소와 신규 고용창출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창업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각종 지원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등의 반복적인 경제악재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생존전략으로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2011년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 들어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고조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

는 국정비전 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반영하여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행중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각 부처는 총 1.5조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우수한 청년창업가 발굴 양성’이나 ‘원활한 제도전 환경 조성’을 추진과제로 명시하여 청년 일자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와 지원정책에 힘입어 2014년 1/4분기 신설법인수가 처음으로 2만개를 넘어서 양적으로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업률은 OECD국가 가운데 호주(11.3%)에 이어 11.1%로 최상위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70% 내외로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호주,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의 국가 보다 20% 낮은 실정이다. 3년 생존율은 40%대, 5년 생존율은 30%대로 한국 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창업의 질이 낮음을 반영한다. 이에 창업기업의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4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ylee@pknu.ac.kr

*** 참여저자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시간강사, jungdaesung@pusan.ac.kr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협동과정 박사과정, s4jang@naver.com

· 투고일: 2015-08-10 · 수정일: 2016-01-29 · 게재확정일: 2016-02-12

초기 정착을 위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교육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찍이 미국 MIT의 Bowman교수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대학 최초로 창업과목을 개설하였다. 이후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미국 대학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유수 대학(Bentley College, Babson College, Boston University, 등)들은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여, 창업교육을 받은 예비 창업자가 성공적인 창업자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은 상생적으로 대학의 중요한 재정 원천이 되고 있다. 대학은 성공한 창업자의 기부금을 다시 창업교육에 사용하여 선순환적인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창업기업이나 창업가의 자질,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미약하고, 창업교육이 단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창취업에 있어 필수적인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체계,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Choi & Yun, 2012). 이에 국내 현장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그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된 Lee(2014)의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는 상생형 현장실습교육으로서 대학생이 소상공인(1) 업체에 가서 현장 실습하는 ‘새가계운동’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생형 소상공인 현장체험이 대학생 창업의지를 발현하고 참여 소상공인 업체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가계운동은 부산시와 (사)한국소점포경영지원협회가 공동으로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대학생이 소상공인에게 일손을 봉사지원하면서 소상공인 생업현장에서 현장체험하는 상생형 현장실습교육이다. 2012년부터 생계형 소상공인에게 청년(대학생 포함)이 약 100일 동안 경영지원 등의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생계형 소상공인이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나아가고 청년은 생활경제를 체득하는 현장실습교육의 효과로 창취업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거둬들이는 과정 속에 생계형 소상공인과 청년이 서로 힘을 합쳐 소상공인 생태계를 재생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과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으로도 볼 수 있다. 새가계운동은 대학생에게 미래 창업을 위하여 보다 밀착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에 대한 의지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창업스킬과 기업가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Lee(2014)는 현장체험 교육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으나, 설문조사 시점이 새가계운동 종료 시점에 이루어져 교육효과와 경영개선효과의 변화 추이와 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계점이 보인다.

이에 Lee(2014) 논문의 한계점을 개선 발전시키고 상생형 현장체험 교육인 새가계운동의 효과를 심층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새가계운동의 효과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 전(5월 1~10일)과 후(8.18~27일)의 각 변수들의 변화추이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체험경험이 참여 대학생들의 창업스킬과 기업가정신,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의 향상과 또한 함양된 창업스킬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주요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4년 5월 10일부터 2014년 8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새가계운동에 참여한 부산 및 경남지역 대학생 300명과 소상공인 업체5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교육 전과 후의 비교를 위하여 교육 시작 전인 5월 1~10일, 교육 종료 후인 8월 18~27일에 걸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참여대학생 278부와 참여 업체 50부의 설문지 회수되었다. 그러나 이 중 결측값이 많거나 일관성 및 성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후 2회의 측정 중 한쪽이라도 없는 경우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참여대학생 설문지 239부와 소상공인 업체 설문지 4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논문은 Lee(2014)에서 제시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대학생들에게는 현장체험 창업교육과 사회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경영개선효과가 있는 상생형 새가계운동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회적 시사점과 제대로 된 창업교육이 일자리문제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제 II장에서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을 하였고, 제 III장에서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에 대해서, 제 IV장은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갖는 의미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 V장에서 정리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검정

2.1 창업교육

Ronstadt(1985)는 과거의 창업교육의 관점(Old School)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체험형 창업교육인 New School을 제시하였다. 그는 성공한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의 기질, 경험, 목적 등을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이 창업가를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lark, et al.(1984)는 창업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창업 이론 수업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이 창업의도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Jang & Hong(2001)은 창업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창업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창업에 관련된 기술과 창업의도를 촉진시키는 교육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Ucbasaran, et al.(2003)은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창업자의 과거 창업실패 경험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Park & Kim(2009)은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역량들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고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1)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대체로 4~9인 이하인 고용주 및 자영자로서 중소기업의 분류에 속하며,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87.0%(292만개), 전체 종사자 수의 38.1%(568만명)을 차지하여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2.2 현장체험형 창업교육

창업교육 중 현장체험형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 일정기간동안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된 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능력, 창업 시 발생하는 문제점, 사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정신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Robinson & Sexton(1994)은 창업자가 사전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경험과 이전의 창업경험이 창업 역량을 함양하게 하고, Kim,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창업교육과 현장체험이 창업 시 창업자 스킬과 기업가정신을 높여 창업의 실패율을 낮추며 또한 창업의도를 고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ee(2014)는 현장체험형 창업교육의 일환인 새가계운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새가계운동이 창업 스킬과 기업가정신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대학생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된 체험교육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교육이수자의 창업스킬, 기업가정신, 창업태도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 전후로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실제적으로 창업교육의 목적인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교육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새가계운동 체험경험이 새가계운동 참여 전과 후에 걸쳐 대학생들의 창업스킬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를 변화시키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체험활동 경험 전에 비해 경험 후의 a) 기업가정신 b) 창업스킬 c) 창업태도 d) 창업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2.3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위험감수성(Risk taking), 자율성(Autonomy), 진취성(Proactivity)을 가지고 자원을 재분배, 재결합하는 정신, 활동 또는 과정으로 정의된다(Covin & Slevin, 1991).

기업가정신은 현재의 위기와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도전과 창조정신으로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발견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Lee & Chang, 2003). 창업가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나아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이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창업가의 변화 인식과 자발적인 경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Dess & Lumpkin, 2005). 또한, 기업가정신은 창업가의 자세와 행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신제품 도입과 경쟁우위의 기술능력과 같은 끊임없는 진취적 활동을 통해 경쟁우위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불확실한 창업환경에

서 도전적인 진취성은 창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rant, 1996; Zampetakis, et al, 2009; Kim,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기업가정신이 창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 기업가정신은 창업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창업스킬

Park & Kim(2009)은 전문적인 창업대학원 교육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의 만족도와 참여동기를 설문조사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서는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와 창업스킬을 향상시키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Choi, & Kim(2010)은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교육만족도와 자기유능감을 제고시켜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Park & Ko(2011)는 예비창업자의 교육만족도가 창업스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창업가는 창업아이템 선정부터 사업계획서 수립, 자금조달, 인력채용, 마케팅 등 모든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창업 지식과 기술 역량을 창업스킬로 정의하는데, 창업스킬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배양될 수 있다(Lee, 2014).

창업자가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창업스킬은 개인에게 창업을 하려는 태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창업스킬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 창업스킬은 창업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창업의도

창업관련 연구들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업자의 심리특성, 배경특성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외에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창업자의 행동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행위 또는 의도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은 일종의 계획된 행동으로 정의된다(Fishbein & Ajzen, 1975).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의도는 태도와 규범의 함수로 볼 수 있으며, 행동의지를 결정하는 태도와 사회규범 인식에 대한 측정을 포함한다. 여기서 태도는 항상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의미 한다. Ajzen(1991)은 행동(창업)과 이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의지(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적 태도(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라고 주장하였다.

Herron & Robinson(1993)은 창업자가 지닌 기술과 동기부여를 창업자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장하였다.

Park & Kim(2009)은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 Lee(2014)는 창업의도 없이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인이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며 창업의도와 창업가의 역량은 교육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배양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개인이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경험이 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 창업태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 창업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새가계운동에 실제로 참여한 부산 및 경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새가계운동 기간은 2014년 5월 10일부터 2014년 8월 17일까지 100일 동안이며 교육 전과 후의 비교를 위하여 교육 시작 전인 5월 1~10일, 교육 종료 후인 8월 18~27일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시작 전의 설문지에서와는 달리, 교육 후의 설문지에서는 먼저 실제로 본인이 참여했던 새가계운동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고, 그 이후로 참여기간동안의 경험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50여개의 업체에 5인(최소 4인) 1조로 조별 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 3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고 278부의 설문지 회수되었으나 이 중 결측값이 많거나 일관성 및 성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후 2회의 측정 중 한쪽이라도 없는 경우의 설문지를 모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9부의 설문지에 대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108명(45.2%)이며 여성은 131명(54.8%)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시행된 새가계운동은 부산지역 대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2014년에 시행된 새가계운동은 부산지역 대학생 161명(67.4%)과 경남지역 대학생 78명(32.6%)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연령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21~25세(170명, 71.1%)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새가계운동이 대체로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가계소득 월 300~400만원 미만에 속하는 대학생이 59명(24.7%)이었으며, 개인학생의 용돈은 월 50만원 미만이 203명으로 84.9%를 차지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명)	구성(%)
성별	남성	108	45.2
	여성	131	54.8
지역	부산	161	67.4
	경남	78	32.6
연령	20 이하	54	22.6
	21~25	170	71.1
	26~30	15	6.3
월 가계 소득	50-100만원 미만	4	1.7
	100-150만원 미만	7	2.9
	150-200만원 미만	10	4.2
	200-250만원 미만	22	9.2
	250-300만원 미만	39	16.3
	300-400만원 미만	59	24.7
	400-500만원 미만	57	23.8
	500만원 이상	41	17.2
월 용돈	50만원 미만	203	84.9
	50~100만원 미만	34	14.2
	100~150만원 미만	2	.8
	Total	23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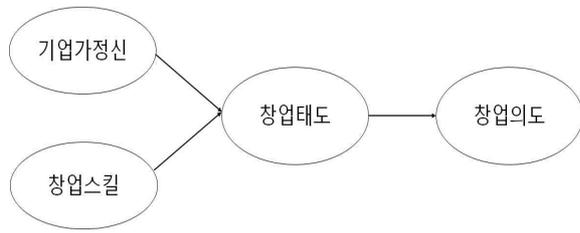
3.2 자료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이론적 개념들을 측정하는데 활용된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과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 측정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Cronbach's α , AVE, CR 계수를 이용한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가설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 중의 하나인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s; PLS) 경로모형을 사용하였다. 부분최소자승법은 다층적 구조로 된 다수의 변수를 포함한 이론적인 이론모델과 측정모델의 적합성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이다. 부분최소자승법은 총 분산인 주성분(Principle Component)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공통요인을 기반으로 한 여타의 구조방정식 모형과는 달리 표본의 크기와 변수 및 잔차의 정규분포에 대한 제약조건이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료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Fornell & Cha, 1994; Barclay, et al. 1995).

3.3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새가계운동 체험경험활동이 참여 대학생들의 창업스킬과 기업가정신 및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와, 함양된 창업스킬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에 의하여 검증하도록 설정하였다.

주요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서술하는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수립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4 변수의 측정

창업스킬은 Herron & Robinson(1993)과 Park & Ko(2011)의 척도를 본 연구에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창업이해도, 준비능력, 지식과 기술 등의 6개 항목으로, 기업가정신은 Park & Ko(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수정하여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신감, 등의 6개 항목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창업태도는 Liñan & Chen(2009)의 문항을 본 연구의 상황과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창업태도는 창업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지, 기회와 자원이 있다면 창업을 하고 싶은지 등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창업의도 역시 Linan & Chen(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향후에 창업을 할 것인지,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포함한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모든 측정문항들은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모든 항목이 자기기업형 설문 문항이기에 자체 보고 데이터에 의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에 대한 잠재성이 우려되어, 각 항목간의 점화효과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각 변수별 설문문항을 최대한 공간적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Liang, et al.(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동일방법편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R1값은 0.847, R1 square 값은 0.920, R2

값은 0.068, R2 square 값은 0.260으로 산출되었다.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의 동일방법편의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판단하였다.

IV. 실증 분석

4.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1) 개별 측정항목의 신뢰성(Item Reliability), (2)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확인을 위한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그리고 (3) 구성개념 간의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였다.

부분최소자승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러한 세 가지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의 중요성은 확인된 바 있다(Hulland, 1999). 첫째, 개별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측정항목의 적재값으로 판단한다. 즉, 개별 측정항목과 관련변수의 공유된 분산이 오차분산보다 크기 위해서 측정항목의 적재값이 0.7 이상을 만족하여야한다. 둘째, 내적 일관성의 기준은 평균분산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CR이 0.7이상 (Nunnally, 1978) 또는 AVE가 0.5 이상(Fornell & Larcker, 1981)을 만족하게 되면 내적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 수렴타당성은 측정항목의 적재값과 다른 관련 변수들에 대한 교차적재값을 비교한다.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VE의 제곱근과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 값으로 판단한다. 측정항목에 대한 적재값이 교차적재값보다 크면서 0.7 이상이면 다른 요인과 구별이 된다고 본다(Hulland, 1999). 그리고 AVE 제곱근값이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관계수보다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표 2> 측정항목 설문내용 및 적재값(교차적재값 포함)

	측정항목	설문내용	기업가정신	창업스킬	창업태도	창업의도	적재값	t값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1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와 태도를 갖추고 있다.	0.851	0.646	0.581	0.405	0.851	55.265
	기업가정신2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0.870	0.651	0.575	0.402	0.870	63.830
	기업가정신3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행동한다.	0.831	0.628	0.572	0.491	0.831	44.043
	기업가정신4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0.848	0.676	0.527	0.457	0.848	49.011
	기업가정신5	경쟁점포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0.861	0.706	0.598	0.427	0.861	55.587
	기업가정신6	창업 중에 발생할 다양한 난관들을 극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0.820	0.679	0.585	0.400	0.820	41.941
창업스킬	창업스킬1	내게 적합한 업종 및 아이템을 식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0.599	0.767	0.425	0.395	0.767	25.548
	창업스킬2	내게 적합한 점포 입지를 식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0.589	0.793	0.363	0.310	0.793	32.259
	창업스킬3	적절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0.608	0.820	0.347	0.266	0.820	35.810
	창업스킬4	점포관리, 재료관리, 종업원관리, 손님응대 등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0.621	0.848	0.366	0.251	0.848	45.679
	창업스킬5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0.684	0.842	0.473	0.358	0.842	48.262
창업태도	창업태도1	직업 또는 경력으로써 창업은 매력적이다.	0.624	0.451	0.821	0.528	0.821	32.460
	창업태도2	기회와 자원이 있다면 창업을 하고 싶다.	0.542	0.390	0.888	0.593	0.888	52.908

	창업태도3	내가 여러 선택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0.616	0.446	0.925	0.690	0.925	98.644
	창업태도4	창업가가 되는 것은 나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	0.562	0.419	0.910	0.703	0.910	74.572
	창업태도5	내가 창업가가 되면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다.	0.624	0.517	0.840	0.675	0.840	47.983
창업의도	창업의도1	나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0.542	0.432	0.647	0.845	0.845	41.051
	창업의도2	나는 창업을 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0.525	0.432	0.644	0.850	0.850	49.269
	창업의도4	나는 향후에 창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0.307	0.211	0.594	0.840	0.840	45.296
	창업의도5	나의 직업에 대한 목표는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0.338	0.223	0.600	0.872	0.872	48.013

<표 2>는 측정항목 간 로딩 값과 크로스 로딩 값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측정 항목들이 로딩 값이 0.7 이상이며, 크로스 로딩 값도 크게 나타나므로 측정 도구가 잠재 변수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인 적재값에 문제가 있었던 문항(창업의도 3과 창업의도 6)을 제거하여 변수를 정제하였다. 이 중 기업가정신은 적극성, 위험감수, 자신감의 3개의 하위요인을 가진 상위요인이고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등의 과정이 필요하나, 6개의 문항이고 이를 개념적으로만 구분한 후 단일요인으로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은 합성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을 사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표 3> 신뢰성 분석

	AVE	CR	R ²	α	GoF
기업가정신	0.718	0.938		0.921	0.621
창업스킬	0.670	0.924	0.616	0.901	
창업태도	0.771	0.944	0.460	0.925	
창업의도	0.726	0.914	0.533	0.874	

<표 3>은 개별 구성개념들의 다양한 신뢰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신뢰성 분석표의 AVE값을 활용해 상관관계인 AVE의 제곱근 값을 대조·작성하여 비교해 보면, 모두 AVE의 제곱근 값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변수의 판별타당성이 충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판별타당성 분석

	기업가정신	창업스킬	창업태도	창업의도
기업가정신	0.847			
창업스킬	0.785	0.818		
창업태도	0.677	0.508	0.877	
창업의도	0.507	0.386	0.730	0.851

* 굵은 글씨는 AVE의 제곱근.

<표 4>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AVE를 통한 판별타당성의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다른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판별타당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변수가 내용적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있는 개념을 가지며 앞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과 조작적 정의의 부분을 통해 이미 언급한 바 있기에 수용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4.2 대학생 새가계운동 효과분석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경로간의 유의성을 검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생변수들에 대한 R제곱이 0.1 이상

이면 모형을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Tenenhaus, Vinzi, Chatelin, & Lauro(2005)가 제안한 글로벌 적합 지수(GoF)를 사용한다. 글로벌 적합 지수는 내생 변수에 대해 평균 공통성(communality)와 평균 R²의 기하 평균으로 산출한다($GoF = \sqrt{AVE \times R^2} = \sqrt{Communality \times R^2}$). 부분최소 분산모형에서는 공통성과 AVE는 동일하기 때문에 공통성을 글로벌 적합지수를 산출하는 데 AVE를 사용할 수도 있다 (Fornell & Larcker, 1981).

적합도의 기준은 Chin(1998)의 기준을 사용한다. R²를 기준으로 0.67은 강함, 0.33은 중간, 0.19은 약함으로 판단한다. 동일선 상에서 GoF의 평가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평균 AVE 값 0.5와 강·중·약의 R² 측정기준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GoF의 기준을 0.31(소), 0.41(중), 0.58(대)로 제시할 수 있다(Wetzels, Schroder, & Van Oppen, 2009).

본 연구모형의 GoF 값을 계산한 결과 0.621로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설 1의 검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거친 문항들의 평균값(교육 전 Vs. 교육 후)을 이용하여 SPSS를 이용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의 가설 2, 3, 4는 부스트래핑 방법(samples 500)을 사용하여 (Chin, 1998) 검증하였으며, 각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요약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는 새가계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창업스킬, 기업가정신, 창업태도, 창업의도가 변화한지를 관찰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증결과를 살펴보면, 새가계운동 참여 전보다 참여 후 기업가정신, 창업태도, 창업의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에 걸친 상생형 체험교육의 결과로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태도와 실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의도가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스킬의 경우 오히려 교육 전이 교육 후보다 낮다. 가설이 각각된 이유를 유추하자면, 과거 시행경험에 비추어볼 때, 일반적으로 새가계운동에 지원하는 대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감에 차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육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종의 과대평가 효과가 나타났고, 교육을 받아가면서 실제 업체의 운영과 창업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가면서 응답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가설 1은 가설 1a를 제외하고 부분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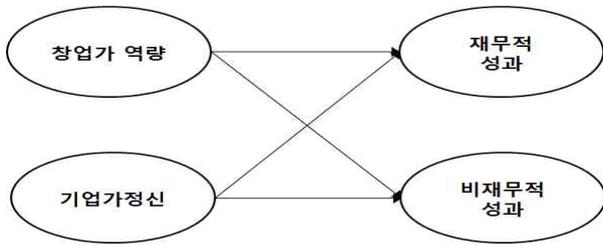
<표 6>은 참여 대학생에 대한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를

나타낸다. 가설 2의 경로계수 0.724(p < 0.01)로 나타나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가설 3은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창업스킬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가설에서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단순히 기술과 능력이 향상된 것만으로는 창업태도가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실제 향후 대학생 대상 창업관련 교육을 시킬 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강조하기보다는 잠재 창업자인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는 것에 착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창업태도와 창업의도의 관계이다. 경로계수 0.730(p < 0.01)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4.3 소상공인 새가계운동 효과분석



<그림 2> 소상공인에 관한 연구모형

<그림 2>은 해당 추가분석의 연구모형을 도식화 한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가계운동의 효과를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의도 향상을 통해 검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본 상생형 체험학습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인 소상공인 업주들의 역량 강화나, 새가계운동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획득하게 되는 유, 무형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표 7> 조사 참여 업주들의 표본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
성별	남성	24	52.2
	여성	22	47.8
지역	부산	31	67.4
	경남	15	32.6
연령	26-30세	4	8.7
	31-35세	12	26.1
	36-40세	8	17.4
	40-45세	12	26.1
	46-50세	4	8.7
	51 이상	6	13.0
업종	기타외식	6	13.0
	제과제빵	2	4.3
	농수산	3	6.5
	건강식품	1	2.2
	의류패션	3	6.5

	기타도소매	2	4.3
	교육서비스	6	13.0
	스포츠	1	2.2
	컴퓨터관련	2	4.3
	기타	20	43.5
사업체 형태	단독사업체	36	78.3
	본사	7	15.2
	가맹점	1	2.2
	기타	2	4.3
소유 형태	소유	6	13.0
	월세	22	47.8
	전세	4	8.7
	보증부 월세	11	23.9
	기타	3	6.5
월 평균매출	200 만원 미만	8	17.4
	200-400 만원 미만	10	21.7
	400-600 만원 미만	3	6.5
	600-800 만원 미만	4	8.7
	800-1000 만원 미만	8	17.4
	1,000-2,000 만원 미만	5	10.9
	2,000-3,000 만원 미만	3	6.5
	3,000-4,000 만원 미만	2	4.3
	4,000-5,000 만원 미만	1	2.2
	5,000만~10,000 만원 미만	2	4.3
계	46	100	

학생들이 활동하였던 부울경 소상공인 업주 50인을 대상으로 업주들의 새가계운동 체험경험이 그들의 창업가 역량(혹은 경영역량)향상 및 기업가정신 함양과 이들이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 전, 후의 대응표본 t-검정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 후 측정 중 결측값이 존재하는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46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PLS 구조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변수 1개 당 10개의 표본 수를 최소치로 제한하고 있다(Chin, 1998). 본 모형은 4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최소 40개의 표본이 필요하고 본 조사의 표본수는 이를 충족시키기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체험경험과 기업가정신 설문항목은 대학생의 경우와 같지만, 창업스킬(창업가역량)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가진 변수이나 대학생 표본들과 측정방법이 다소 상이하다. 업주들의 능력은 새가계운동의 영향만으로 향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현재 자신의 관련 능력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점포의 운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지표로는 Yoon & Park(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재무적 성과는 점포매출액, 투자수익률, 순이익, 고객 수 등이며 비재무적 성과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고객만족도, 재방문의도, 종업원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각각 4문항, 5문항의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7>은 새가계운동에 참여한 업주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은 남성이 24(52.2%)이며, 여성이 22(47.8%)이다. 지역적으로는 부산이 경남보다 2배정도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경남지역이 2014년부터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업종은 교육서비스와 기타 외식이 각각 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업체 형태는 단독사업체가 78.3%로 가장 높다. 월세 사업장이 22곳으로 영세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1~3명이 22(48%)로 가장 많았고, 4~7명이 13(26%), 8명이상이 5(9%),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7(15%)로 나타났다.

<표 8> 참여 업주에 관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

변수	집단	N	평균	t값
창업가 역량	전	46	5.221	1.973**
	후		5.518	
기업가정신	전		5.373	2.115**
	후		5.750	
재무적 성과	전		4.190	3.195***
	후		4.885	
비재무적 성과	전	5.369	2.216**	
	후	5.769		

<표 8>은 참여 업주들의 새가계운동 전·후 창업가 역량, 기업가 정신,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검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참여 업주들의 창업가 역량, 기업가 정신,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가 새가계운동 참여 이후에 4가지 부분에서 모두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재무적 성과의 경우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참여 업주에 관한 구조모형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t값
창업가 역량 → 비재무적 성과	0.310	2.923***
창업가 역량 → 재무적 성과	0.288	2.726***
기업가정신 → 비재무적 성과	0.481	4.356***
기업가정신 → 재무적 성과	0.271	2.579***

*p < .10, **p < .05, ***p < .01에서 유의.

<표 9>는 소상공인에 관한 구조모형검증 결과이다. 구조모형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가 역량과 기업가정신 모두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가계운동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업주들에게 발현됨으로써 폐업률이 높은 소상공인의 창업현실에 새가계운동이 생업에 바빠 따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업주에게도 창업 후 체험학습으로서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새가계운동의 체험학습이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의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기업가정신 향상에도 이바지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상생형 현장체험 창업교육인 새가계운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

가계운동 체험이 참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창업태도, 창업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창업태도에, 창업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실시된 소상공인들의 체험경험과 성과와의 관계 역시도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과 함께한 새가계운동의 경험은 소상공인들의 창업가 역량(경영역량)과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며, 창업가 역량과 기업가정신의 향상은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새가계운동 체험학습이 대학생의 창업에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질적인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새가계운동과 같은 새로운 상생형 체험 프로그램이 참여한 대학생과 업주에게 양방향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체험학습자와 피체험학습자가 상호 혜택을 받는 구조로 만들어져 서민경제 해결을 위한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현장실습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에 있어서 세대별로 단절되는 것보다는 새가계운동과 같이 청장년이 같이 노력해서 그 결과가 상생적인 양방향 현장체험학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현장경험(창업교육)의 중요성과 사회봉사 활동의 기회가 동시에 제공되는 점에 있어서 또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REFERENCE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Barclay, D. W., Thompson, R. & Higgins, C.(1995). The Partial Least Squares (PLS) Approach to Causal Modeling: Personal Computer Adoption and Use an Illustration, *Technology Studies, Technology studies*, 12(2), 285-309.

Chin, W. W.(1998). Issues and Opinion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IS Quarterly*, 22(1), 7-16.

Choi, J. I. & Yun, H. B.(2012). Development on Educator for Entrepreneurship Progra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07-214.

Clark, B. W., Charles, H. D. & Harnish, V. C.(1984).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2(2), 26-31.

Covin, J. G. & Slevin, D. P.(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5.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Dess, G. G. & Lumpkin, G. T.(2005).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Stimulating Effectiv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1), 147-156.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 Reading, MA: Addison-Wesley.
- Fornell, C. & Cha, J.(1994). Partial Least Squares, *Advanced Methods of Marketing Research*, 407, 52-78.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erron, L. & Robinson, R. B.(1993).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281-294.
- Hulland, J.(1999).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PLS) in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Four Recent Stud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2), 195-204.
- Jang, D. S. & Hong, S. K.(2001). An Empirical study on the venture Education Effects between Korea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7, 105-124.
- Kim, C. H., Kang, B. O. & Hyoung, B. Y.(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Store Entrepreneur's Start up Education and Experience before Start up to Performance of Stor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3), 1135-1147.
- Kim, H.(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 Lee, S. M. & Chang, D. S.(2003). A Comparative Study on Venture Creation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Between Korea and USA, *Korea Business Review*, 7(1), 7-25.
- Lee, Y. T.(2014). The Effects of New Store Movement (University Student Field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Small Enterprise Owners' Management Performance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6(1), 135-157.
- Liang, H., Saraf, N., Hu, Q., & Xue, Y.(2007). Assimilation of Enterprise Systems: the Effect of Institutional Pressures and the Mediating Role of Top Management. *MIS quarterly*, 31(1), 59-87.
- Liñán, F. &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New York.
- Park, J. W. & Kim, Y. T.(2009). An Empirical Study of Effect and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view of Business and Economics*, 22(2), 959-977.
- Park, J. W., Choi, M. G. & Kim, Y. T.(2010).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Performa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cused on Short Program of Local Govern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3), 1085-1094.
- Park, Y. S. & Ko, J. Y.(2011). The Effects of Prospective Foodservice Entrepreneurs Psychologic Characteristics upon the Satisfaction wi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Skill, will to Inaugurate an Enterpris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4(1), 157-179.
- Robinson, P. B. & E. A. Sexton(1994). The Effect of Education and Experience on Self-employment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2), 141-156.
-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 Tenenhaus, M., Vinzi, V. E., Chatelin, Y. M. & Lauro, C.(2005). *PLS Path Modeling, Computational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48(1), 159-205.
- Ucbasaran, D., Lockett, A., Wright, M. & Westhead, P.(2003). Entrepreneurial Founder Teams: Factors Associated with Member Entry and Exi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2), 107-128.
- Wetzels, M., Schroder, G. O. & Van Oppen, C.(2009). Using Pls Path Modeling For Assessing Hierarchical Construct Models: Guidelines And Empirical Illustration, *MIS Quarterly*, 33(1), 177-195.
- Yoon, S. W. & Park, S. I.(2008).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f Franchisees on Their Business Performance : Mediation Effects of Market Orientation and Relationship Commitment,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13(3), 101-126.
- Zampetakis, L. A., Kafetsios, K., Bouranta, N., Dewett, T. & Moustakis, V. S.(2009).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Research*, 15(6), 595-618.

The Study of the Increase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y Thru Win-Win Type Field Study: New Store Movement Case*

Lee, You-Tay**
Jung, Dae Sung***
Oh, Youn Seok****

Abstrac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Accordingly, this study looked at the concept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dentifi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facilitat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then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As for the conven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ere was a tendency to limit its scope to the exploration,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itself. Here in this research,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s defined as the category to expand as various activities implemented in order to make sure that intellectual properties such as intangible technological developments, know-how, and knowledge are transferred between the relevant parties through a contract or negotiation, and the party to which the transfer is made can then further develop and exploit the technology into tangible products and other activities to obtain economic benefit out of that. In addition, the findings of the positive analysis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revealed that the focus of facilitating technology transfer has been on the technology itself, its management and securing efficiency of the systems and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o there was lack of recognition as to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upport given to the phas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is indicates that when it comes to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quantitative performance has been the focus of interest such as patent application, registration,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royalty, etc. So there was not enough understanding as to the issues of starting up a business, creating quality jobs through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creative economy.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policies to boost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s it suggests not only simply ensuring quantitative performance but also necessary to create the environment for the creation of a stable ecosystem for the parties involved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then to build circumstances in which a creative economy can be realized.

Keywords: Research Outcome,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acilitating Factor,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2014 year)

** (First Author)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ytleee@pknu.ac.kr

*** Part-time Instruct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jungdaesung@pusan.ac.kr

**** (Corresponding Author) Ph. D Candidat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4jang@naver.com